

2019 새 설계

정 현 복 광양시장

“도시개발·재생 차질없이 추진…30만 자족도시 기틀 다질 것”



“시로 승격한지 3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인 만큼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실천처럼 변함없이 시민 행복을 위한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지난 4년간 준비해 온 변화의 토대를 기반으로 새로운 30년을 열어갈 희망과 도전의 여정을 시작 한다”며 “경제, 일자리, 관광산업 육성,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시정의 역점을 두고 시민 행복! 새로운 광양시대!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도시 정주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건강하게 키워 나가기 위해 30만 자족도시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정 시장은 “와우와 광영·의암, 성황·도이, 목성 4개 지구에 진행했던 대규모 도시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인사지구와 덕례지구, 도이2지구도 추가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선 광양읍·광영동·태인동에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광양국가산단 명당3지구 조성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함께 대근지구와 도이 준공

차세대 신소재산업 연관단지 구축

아동친화도시 만들고 삶의 질 향상

도립미술관 개관·예술고 개교 준비

업지역에 대한 추가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신산업 육성으로 견실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며 “세풍·황금산단에 ‘고망간 소재 기술개발 생태계 구축’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포스코 이차전지 소재산업과 연계된 부품공장을 적극 유치해 차세대 신소재산업 연관단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산단에는 금속가공 열처리산업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고, 세풍산단이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다.

특히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사업 대상지에 대한 보상을 조속히 실시하고, 단계별로 추진하는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는 가시

적인 변화를 제감토록 하며 망덕산과 배알도를 잇는 짚아인과 수변센터 설치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제감형 생활복지를 위해 아이 행복을 위해 6대 분야 40개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초·중·고등학생 100원 버스 운행,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관광도시 기반마련을 위해선 시 문화 융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도립미술관과 창의예술고등학교가 2020년에 성황리에 개관·개교하도록 해야한다”며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 시민중심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2011년부터 어렵게 추진해 온 도서관사 풍수사상 수련관도 내년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속가능한 희망 농어촌 건설과 더욱 탄탄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 하겠다”며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된 ‘와우·길호포구 어촌뉴딜 300’ 사업은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 과 연계해 문화 레저시설, 어항 관련시설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산

2019년도 시정 분야 중점사항

- ▲도시 정주기반 확충 및 건강한 지역경제 육성
- ▲신산업 육성으로 견실한 산업 생태계 조성
- ▲모두가 누리는 제감형 생활복지 실현
-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관광도시 기반 마련
- ▲지속가능한 희망 농어촌 건설과 더욱 탄탄한 농어업 환경 조성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 구현

업의 동반 성장을 꾀한다는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광양 경제 제2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강하고 더 큰 광양을 위해 다가오는 미래 100년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모든 열정을 다 쏟아 시민 행복을 위한 강력한 시정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골목과 한옥·문화로 다시 가꾸는 광양살터

광양읍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회의 열고 본격 추진

광양시가 최근 광양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광양읍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에 본격 나섰다.

이번 회의에는 사업 총괄코디인 경산대학교안재락 교수, 영구선 광양읍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대표를 비롯한 위원, 유관 단체 관계자, 주민, 시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광양읍 도시재생 사업의 기반구축 분야인 지역역량강화용역 착수 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을 공유했다.

시는 그동안 2015년 9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된 이후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2차에 걸친 국토부 관문심사를 거친 후 2017년 9월 국무총리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7월 전라남도로부터 전략계획 승인을 받아 ‘활성화지역 지정’을 완료하고,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결과 지난해 11월 전라남도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광양읍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의 관문심사와 국무총리

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골목과 한옥, 문화로 다시 가꾸는 광양살터’를 비전으로 설정했다.

시는 앞으로 오는 2020년까지 국비 50억원을 포함한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4개 분야 13개 단위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 중 도시재생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주민과 지역의 거버넌스(조직, 역량) 구축을 위한 분야에 해당하는 부분인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지난해 12월 착수를 시작으로 1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시는 사업의 세부사항들을 이달부터 추진되는 도시재생대학 등에서 주민 의견 수렴 결과와 실무 협의 등을 통해 조정할 예정이다. 또 내달 중 한옥가꾸기 건축설계용역에 착수와 함께 나머지 단위사업들에 대해서도 상반기 내 설계 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의 운영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3·1운동 주도 옥고 광양 출신 김무일 선생 등

호남 독립운동가 11명 수형기록 찾아 서훈 신청

광양출신으로 경남 하동에서 1927년 제2의 3·1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른 김무일 선생 등 호남출신 독립운동가 11명의 수형기록을 3·1운동 100년 만에 찾아 최근 정부에 서훈을 신청했다고 정재상 경남독립운동연구소장이 밝혔다.

이번 발굴은 경남독립운동연구소가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하동군과 함께 지역 미발굴·미포상 독립운동가 찾기 전수조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문건과 관련해 정재상 소장은 “국가기록원과 국가편찬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형사공소사건부’ ‘집행원부’ ‘일제감시카드’ ‘경상남도 보고서’ 등의 자료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1927년 하동에서의 제2의 3·1독립운동을 주동한 13명의 수형기

록과 호남 출신 11명 등 46인의 항일행적이 담긴 수형문건을 찾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발굴한 문건 중에 광양 출신 김무일(金武一, 1905~?, 진상면 섬거) 선생은 1927년 하동에서 제2의 3·1운동에 가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생은 하동군 악양면 출신 강대용과 여국엽, 임성필 등 20여명과 함께 1926년 12월 강대용의 집(하동군 악양면 중대리)에서 비밀리에 회합을 갖고 일제의 한반도 강탈정책을 규탄하는 시위를 모의했다. 준비한대로 하동 장날인 1927년 3월 3일 1000여명에 이르는 주민과 상인이 참가한 가운데 시위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일본 경찰과 충돌이 발생했다.

이 일로 김무일, 강대용, 여국엽, 여태



김무일 대구복심법원 형사공소 사건부.

(경남독립운동연구소 제공)

원, 임성필, 송우복 선생 등 중심인물 50여 명이 일본경찰에 연행돼 고문을 받았고 30여 명이 재판에 넘겨져 강대용, 여국엽, 김무일 선생 등 13명은 진주법원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오(騷擾)·상해(傷害) 등의 죄목으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징역 2년에서 8개월의 옥고를 치러야 했다.

또 김태수(金泰守, 1898~?, 광양 태인동), 최영근(崔永根, 1906~?, 광양 태인

동), 최원원(崔萬元, 1905~?, 광양 태인동) 선생은 1927년 12월 10일께 광양 태인동에서 조선어로 된 문서에 일제의 불법 감금 폐지와 조선어 사용 확립 조선어 교사 등용 등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광양 일대에 배포한 혐의로 일본경찰에 체포돼 출판법 위반으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받았다.

이번 문건을 분석한 정재상 경남독립운동연구소 소장은 “1927년 하동에서 영·호남 출신 1000여명이 가담한 제2의 3·1운동이 대규모로 일어났음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며 “이 같은 일은 영·호남 지역민이 함께한 1919년 이후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위로 평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내용들이 지역항토사에 단 한 줄의 기록도 없어 안타깝다”며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잊혀진 항일영웅에 대한 예우에 우리 사회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광양항만공사 건설현장 안전실천 결의대회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 7일 여수시 중흥동에 위치한 광양항 석유화학부두에서 건설현장 안전실천 결의대회(사진)를 개최했다.

건설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 이날 결의대회에는 공사 관계자, 석유화학부

두 내진성능 보강공사 현장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위험한 작업환경을 자율적으로 개선해 건설재해 발생 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하자고 결의했다.

또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안전보건 활동에 앞장서고, 공사와 시공회사

전 직원 모두가 안전문화 확산에 나서 더 이상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안전실천 의지를 다졌다.

차민식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위험 작업근로자는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는 사전 작업허가제(PTW, Permit to Work)를 강화하는 등 한발 앞 선 건설안전사고 대비 역선평안을 정착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주)금호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경영로 17번길 9 거승빌딩

임대 문의 (062)382-8879

광주사업지

- 동 구 | 자산동, 소태동
- 서 구 | 금호동, 풍암동, 치평동, 농성동
- 남 구 | 주월동
- 북 구 | 신용동, 연제동, 운암동
- 광산구 | 수완동, 신창동, 운남동, 월계동, 신월동, 소촌동, 송정동, 도산동

전국사업지

- 서울특별시 | 잠실동
- 부산광역시 | 광안동
- 제주특별자치도 | 노형동
- 경기도 안성시 | 중리동
- 전남 목포시
- 전남 화순군
- 전남 담양군
- 전북 완주군

가족회사

(주)송도건설 / (주)금호에너지 / (주)송도 / (유)송산